

“제93회 춘향제 많이 놀러 오세요”

남원시, TV·옥외 전광판·KTX 열차 내 모니터·유튜브 등 홍보 나서... 25~29일 개최

남원시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5일간) 광한루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93회 춘향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시 홍보전산과(과장 양효상) 홍보팀에서는 전통과 첨단 빛의 향연이 될 제93회 춘향제를 위해 다양한 연령층이 접할 수 있도록 TV, 옥외 전광판, KTX 열차 내 모니터 홍보, MZ세대를 겨냥한 유튜브 전용 춘향전 패러디 영상제작과 포털사이트,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 등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춘향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만큼 인근 지역 홍보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홍보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참이슬 라벨에 '제93회 춘향제' 홍보 문구를 넣는 틈새 홍보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93회 춘향제는 '춘향, 빛을 그리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통과 첨단 빛·사랑과 낭만의 길·먹거리와 국악의 흥·공연과 체험의 멋'이라는 4가지 테마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남원시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광한루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93회 춘향제'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축제를 즐기기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 5월에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빛으로 화려하게 갈아 입을 남원의 낮과 밤을 만나보세요”라고 홍보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시, 옥구읍성 객사·내아터 시굴조사 착수

성공적 조사·안전 기원 개토제 실시

군산시는 2일 성공적인 조사와 안전을 기원하는 개토제를 시작으로 금년 10월까지 옥구읍성 객사 및 내아터 시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옥구읍성은 군산 옥구읍 상평리에 위치한 곳으로 광월산의 남쪽 봉우리를 정점으로 동쪽과 서쪽에 날개처럼 흘러내린 구릉을 활용해 축조됐다.

옥구읍성은 '해동지도', '1872년 지방도' 등의 고지도도를 통해 주요시설인 객사, 내아, 동



현 향청 등의 시설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는 전라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옥구향교 대상

전과 자전대 등만 남아있다.

이에 시는 옥구읍성 조사의 첫 발걸음으로 읍성의 주요시설 중 하나인 객사와 내아에 대한 시굴조사를 2023년 실시한다.

이번 객사 및 내아터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정밀발굴조사, 학술대회, 문화재지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옥구읍성 시굴조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마을주민 및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군산시의 문화와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유산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태권도원 머물며 태권도 문화 즐겨요”

태권도진흥재단, 태권스테이 판매 시작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태권도 콘텐츠를 중심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태권도 관광 상품인 '태권스테이'의 23년 상품을 2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태권스테이'는 1박 2일 동안 태권도원에 머물며 다양한 태권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상품으로 21년부터 판매를 시작, 재구매율이 높은 인기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231만 4천㎡(70만 평) 규모의 태권도원의 인기 콘텐츠를 집약한 상품으로 태권도 시범공연 관람, AR·VR 태권

도 체험 및 수련 체험 등 참가자 전원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태권스테이는 소셜커머신인 티몬, 위메프 등에서 구매 예약을 할 수 있으며 매주 다른 테마로 진행되는 가족 운동회와 작은 콘서트, 마술쇼,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관광을 연계한 상품과 어린이날, 광복절 등 기념일을 활용한 테마 상품을 추가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5월 5일 어린이날 태권스테이에서는 태권도 체험과 함께 전래놀이, 운동회, 에어 바운스 놀이 등을 운영하는 등 빠른 매진이 예상된다.

앞서 태권스테이는 22년 1만여 명이 참가하며 주말 상품의 경우 연일 매진 사태를 이어왔다. 고객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8점 이상을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특히, 참가자들이 소셜커머스에 직접 남기는 상품 리뷰에서는 2번, 3번 이상 5번까지 참가하는 고객들도 나타나며 가성비를 넘어 '가성비, 해자스러운 상품'이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그리고 단 한 번도 태권도복을 입어본 적 없는 분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이 태권스테이”라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어른들은 청정 자연에서 힐링을 느끼는 등 색다른 태권도 매력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101회 어린이날 프로그램 '풍성'

국립전주박물관, 5일 어린이축제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대리 정삼기)은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2023년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축제를 5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박물관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체험놀이마당, 공연마당, 영화 상영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국립전주박물관과 지역 내 여러 문화단체가 연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먼저 체험놀이마당에서는 오전 10시 박물관 보물찾기를 시작으로 2시 장안 문화예술촌(꽃심) 정인과 함께하는 한지 천연염색 체험이 진행되며, 페이스페인팅과 요술 풍선, 바람개비 만들기 등의 놀이들이 준비되어 있고, 특히, 박물관 대표유물을 주제로 색칠도안을 제작하여 아이들이 직접 색칠해 보며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했다.

옥외뜨락에서 펼쳐지는 공연마당에서는 5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와 연계한 싸울아비공연단(전주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공연 '인버터블: 신의 게임'이 오전 11시부터 진행된다.

또한 오후 2시에는 'JS매직' 박진주 미술사의 매직 버블쇼가 펼쳐지는데, 미술에 이야기를 접목시킨 스토리 매직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환상적인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단, 우천 시 공연은 강당에서 진행된다.

어린이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어린이날 당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하며 관람 및 체험 등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익산박물관, 5~7일 문화행사 개최

국립익산박물관(관장 최흥선)이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물찾기, 페이스 페인팅, 어린이 공연 3종(풍선쇼, 버블쇼, 솜사탕 마술쇼), 페이퍼 토이 만들기 체험, 미륵사지 석탑 쌓기 놀이 등 총 1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국립익산박물관 어린이날 문화행사의 메인 프로그램은 보물찾기 행사 '미륵사지 보물찾기'다. 박물관 및 미륵사지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보물찾기는 곳곳에 숨겨진 보물쪽지를 찾아 행사 부스로 오면 상품 수령이 가능하다. 상품은 어린이날을 맞아 직접 제작한 '가족용 피크닉 매트'다. 보물찾기는 어린이날 당일만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어린이가 박물관과 유물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륵사지 석탑 쌓기 체험, 유물 페이스 페인

팅, 유물 색칠 놀이 등 박물관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도 다수 운영된다.

다만, 1일차와 다르게 2~3일차에는 행사가 축소 진행된다. 2~3일차에는 특별전 연계 미션 이벤트, 캐릭터 포토존, 추억의 놀이 3개 프로그램만 운영될 예정이다.

우천 시, 행사가 변경·축소될 수 있으며,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립익산박물관 누리집 및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문화재단,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입주 작가 모집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오는 19일까지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입주 작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원도심의 공실을 활용해 예술인의 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임대료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 방식으로 기존의 레지던스(residence) 사업과는 차별성을 지녔다.

전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예술인 중 미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작품 활동이 가능한 작가 총 9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작가는 약 2년간의 입주 기간

동안 작업 공간을 지원 받는다. 또한 입주 작가 협의회를 구성, 사용자 애로사항을 협의하면서 창작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입주 장소는 전주시 원도심인 동문거리에 위치한 삼양대방(동문길 94) 3층과 4층으로, 창작 공간 9실과 공용 공간 1실이 마련됐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원도심 문화의 확산과 작가의 창작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